

##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분석

고선영 이수정\*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대학교

모든 주요범죄 중 하나인 살인 수사는 경찰력의 가장 커다란 노력이 요구된다(Becker, 2000). 본 연구는 범죄현장에 임장하는 수사관들의 직관에 의한 불확실성의 오류를 줄이고자 국내 살인범들의 현장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범죄현장행동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그러한 행동변수가 어떤 테마의 요소로 묶이는 지 살펴보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71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을 33개의 행동변인으로, 범죄현장에서 자주 함께 나타나는 행동 변인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한 지역을 형성하고, 다른 일련의 변인들이 형성하는 지역과는 구분되어 각각의 범죄형태로 통계적 공간에 거리로 나타내는 최소공간분석(Lingoes, 1973)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2개영역(도구적 vs 표출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의 대부분을 포함하면서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등의 행동변수가 특별한 구별 없이 공존하는 표출\_비체계적인 살인영역, 표출적 동기에 해당하지만 범죄자가 어느 정도 피해자와의 부딪힘을 예상했거나 과거 폭력적 대결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에 의한 살인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변인으로 구성된 두 번째 영역, 성적 행동과 관련되어 살인이 일어나는 도구적 살인현장 행동이 반영된 세 번째 영역이다. 국내 살인 자료를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함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한 행동변수는 법적 인식행동으로, 이 행동은 과거 도구적 공격성의 행동변수로만 여겨져 왔다. 하지만 CSI나 Law and Order와 같은 TV쇼의 영향을 따지지 않더라도 현대인들은 이런 법적 기술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됐으며(Stevens, 2008), 법적 인식 행동이 살인범죄에 대한 탈억제효과로 작용될 수 있음(Beauregard & Bouchard, 2010)이 국내 자료로 증명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법적인식에 대한 보편화는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을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개념적으로나 수사적인 면에서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주요어: 범죄자 분류, 살인범죄 현장행동, 표출적 및 도구적 살인, 법적 인식, 탈억제 효과

살인범죄는 2001년부터 해마다 1,000여건의 발생분포로 보험세를 보이다가 2009년 상승하였으며(표 1) 전체 범죄 발생률의 0.2% 정도에 해당된다. 또한 전체 범죄의 비면식범 비율은 발생사건의 과반수(54~61%)에 해당하지만 살인의 비면식범 비율은 전체범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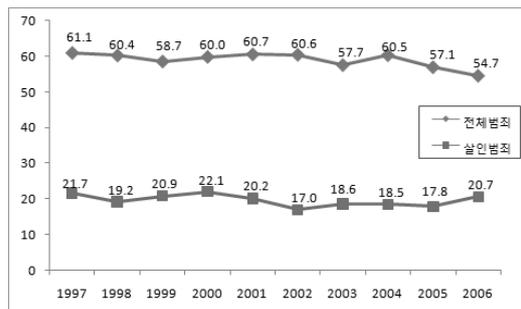
1/3 수준(17~21%)에 불과(그림 1), 살인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자와 어떤 식으로든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요범죄 중 하나인 살인 수사는 경찰력의 가장 커다란 노력을 요구한다(Becker, 2000).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E-mail: suejung@hanmail.net

표 1.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백서, 2009)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발생	532,243	475,369	497,066	455,640	487,690	489,305	521,890	544,527	590,366
	검거	396,885	400,359	399,119	363,369	354,121	354,034	386,212	407,451	485,406
살인	발생	1,051	957	998	1,083	1,061	1,073	1,111	1,109	1,374
	검거	1,076	994	1,038	1,041	1,023	1,054	1,069	1,087	1,341
강도	발생	5,692	5,906	7,292	5,832	5,170	4,838	4,439	4,811	6,346
	검거	4,670	5,957	7,165	4,937	4,022	4,070	3,728	4,125	5,895
강간	발생	6,751	6,119	6,531	6,950	7,316	8,755	8,726	9,883	10,215
	검거	6,021	5,522	5,899	6,321	6,441	7,936	7,796	8,654	9,167
절도	발생	180,704	175,457	187,352	155,311	188,780	192,670	212,458	223,216	256,590
	검거	78,777	125,593	114,920	80,555	80,725	82,456	102,779	113,658	177,771
폭력	발생	338,045	283,930	294,893	286,464	285,363	281,969	295,156	305,508	315,841
	검거	306,341	262,293	270,097	270,515	261,910	258,518	270,840	279,927	291,232

그림 1. 전체범죄와 살인범죄 비면식범 비율  
(강은영, 박형민, 2008)

살인 사건의 수사 시 많은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보고 처음 떠오르거나 인식되는 직관에 의해 사건을 이해, 용의자를 선정하며 수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수많은 경험지식에 의한 직관 수사의 적중률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경험에 대한 설명은 틀리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될 수도 있으며(Ericsson & Simon, 1980; Fiske, 1980), 경험에 대해 느끼는 확실성은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Myers, 1990). 사실 자신감과 정확성 간의 상관은 낮다(Paese & Sniezek, 1991; Sniezek & Henry, 1990; Fiske & Neuberg,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사관들은 확증적 가설검증 전략을 사용하

기 때문에(Einhorn & Hogarth, 1978) 사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력(의사결정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된다. 최초 살인사건 현장 입장 시에 갖는 직관력이 사건의 본질과 일치할 경우는 사건 해결시간이 단축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의견을 수정하는 동안 미해결사건이 되거나 혹은 범인이 도주하여 범인검거에 실패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범죄수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살인사건 수사에 있어 수사관의 매우 중요한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수사관은 방대한 양의 증거 수집, 목격자, 용의자, 범죄현장에 참관한 수사관, 범죄 병리학자 및 범죄학자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잘 어울려 조직화해야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Becker, 2000),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현장을 읽어야 한다(Fisher & Baca, 2004)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도 활용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Fisher와 Baca가 강조한 수사관의 능력 중 중요한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행현장의 행동이해 바탕을 시작으로 범행현장의 분석과 유·무형

1) 2010년 10월 000경찰서 윤락녀 살인사건 발생 시 범행 현장을 보고 강도살인으로 판단하여 유사전과자 중심의 집중수사를 벌였고, 탐문수사 결과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사건 발생 3일 만에 내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나 불법 체류자인 용의자는 사건발생 2일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수, 강제출국으로 검거 실패.

증거의 설명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해내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Pinizzotto & Finkel, 1990; Rossomo, 2000)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방법론과 기준 부재에 대한 문제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Howitt, 2002). 예를 들자면,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실수와 억측으로 가득 찬 육감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일화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들을 억측해온 것(Pinizzotto & Finkel, 1990)에 불과하며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수사관과 심리학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Baumgartner, Ferrari, & Palemo, 2008)는 것이다. 사실, 살인수사와 관련된 수많은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특별한 실험,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설계되기 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으로 실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죄현장과 관련된 범죄자의 분류체계 설계는 그 체계를 지지할만한 원리에 대한 연구와 좀 더 철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전의 절차를 보다 분명히 설명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된다(Salfati, 2000)는 점에서 높은 기여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현장에 최초로 임장하는 수사관들의 직관에 의한 확실성의 오류를 줄이고자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변수가 어떤 테마로 묶이는 지 국내 살인범죄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살인범죄의 수사 및 현장행동분석

수사 심리학적 접근은 범죄현장의 범죄자 행동 특징과 피해자와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난 특징을 변인화하여 경험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유형론들이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검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분석은 검거된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해결 사건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다양한 범죄들의 특징에 대해 일반적 구조를 산출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특정 사건에서 수집된 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의 특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적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Canter, 2004).

살인범죄를 대상으로 다차원의 개념적인 교차와 유

형 체계 분류를 최초로 시도했던 Wolfgang(1958)에 따르면 많은 살인은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 사이클이 상승하다가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촉발한 살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하지만 Wolfgang이 실험한 수많은 변인 중 후속 연구나 형사사법체계에 유의미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피해자-가해자간의 관계 분류뿐이다(Smith & Zahn, 1999). 또한 범죄자의 동기보다 피해자와 범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관찰 가능한 행동특성을 바꾼다(Santtila, Pakkanen, Zappalà, Bosco, Valkama, & Mokros, 2008)는 것이 최근 살인범죄 연구의 결과들이다. 이렇듯 살인은 개인 간의 처리과정에서 발달하며, 이 처리과정은 개개인이 산출해낸 결과물과 그들 간의 관련성으로 본다. Salfati(2003)는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피해자를 향한 범죄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살인이라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상호적 처리과정이라는 다른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즉, 살인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것은 범죄현장 자체에 반영될 것이며, 피해자를 통해 범죄자의 선택과 행동이 범죄현장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에서 강조되는 것들은 범죄현장에서의 범죄자행동(Almond, Duggan, Shine, & Canter, 2005; Canter & Fritzon, 1998; Fritzon, Canter, & Wilton, 2001; Häkkinen, Puolakka, & Santtila, 2004; Kocsis & Cooksey, 2002; Santilla, Häkkinen, Alison, & Whyte, 2003; Wachi, Watanabe, Yokota, Suzuki, Hoshino, Sato, & Fujita, 2007)으로, 많은 사례에서 나타난 특성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것들을 평가하여 유형화 가정을 검증한다. 이 방법은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성격적 특성의 연합 사이에서 함께 발생하는 빈도를 요구하고, 함께 발생하는 패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일차적인 가정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차원척도<sup>2)</sup> 절차이다. 다차원척

#### 2)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 Scale, MDS)

다차원척도분석은 범죄행동 특징을 변인화하여 각 변인들이 공통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다차원 공간상의 거리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기법으로, 각 특징들

도분석은 변인들 중 같이 발생하는 변인들을 기하학적 공간상의 거리 값으로 표현해내는 기법이며, 범죄행동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MDS 모델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어져 왔다(Canter & Heritage, 1990; Canter & Fritzon, 1998; Salfati, 2000; 김경옥, 2009).

### 선행연구를 통한 살인범죄 현장행동분석 변인추출

범죄 현장의 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한 유형에 속하는 특징들이 일관성 있게 함께 발생하는지와 그러한 특징들이 다른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해야한다(Canter, 2004). 국내에는 살인범죄의 현장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실제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변인을 분석한 Salfati (2003)의 변인선택 근거<sup>3)</sup>와 선행연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Canter, Elfgrén, & Häkkinen,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에서 다루었던 변인들을 재분류한 국내 살인범죄분석을 위한 행동변인(고선영, 2011)을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것이다(표 2).

### 최소공간분석(Smallest Space Analysis, SSA)

최소공간분석(Lingoes, 1973)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가상적인 통계적 공간에 거리로 나타내는 다차원척도기법 중 하나이다. SSA는 행동에서의 어떤 강조된 구조 혹은 공통의 주제라고 가정된 것을 기초로 변인 각각의 다양성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 가장 쉽

게 평가될 것이다. 이런 관계는 연합율을 사용하여 측정되어, 기하학적 공간에서의 거리 개념으로 볼 수 있게 표현된다. 표현은 어떤 두 가지 변인 사이의 연합이 높을수록 공간상에 더 가까이 점으로 함께 표현된다(Salfati, 2000). 즉, 어떤 두 변인의 상관값이 클수록 그들을 대표하는 두 점이 통계적 공간상에서 가깝게 나타나는 방식을 통해, SSA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SSA는 변인들의 상관관계 수 자체보다 상관관계수의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상관값이 높은 순서와 상관값이 높은 변인들을 공간상에 서로 가깝게 나타내준다(Alison & Stein, 2001). 다차원척도에서 분석되는 자료는 첫째 판단자가 직접 유사성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유사성과 비유사성 자료와 기타 자료로부터 유사성의 의미를 지니는 지수를 연구자가 도출한 근접성 자료로 구분된다. SSA에서는 이분적으로 평가된 자료들의 근접성을 수치화하는 근접성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Jaccard's coefficient를 사용한다(박광배, 2000). 매트릭스상에서 함께 발생하는 공간상의 표현 적합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지표로는 소외계수가 사용된다(Brog & Lingoes, 1987). 이 계수는 보통 0과 1사이에서 위치하며 그 값이 0일 때 가장 높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사실 소외계수가 얼마나 작아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이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없다(Amar, 2005). 하지만 SSA를 사용한 범죄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고 일컬어지는 계수 수준은 0에서 0.2사이이다(Canter & Heritage, 1990; Salfati & Taylor, 2006). 또한 범죄현장에서 자주 함께 나타나는 행동들을 가리키는 변인들이 모여 가상의 공간에서 한 지역을 형성하고 이 지역은 다른 일련의 변인들이 형성하는 지역들과 구분되어 각각의 범죄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인들의 분류정도는 지역성계수로 나타내며, 이 계수 또한 0과 1사이에서 위치하나 소외계수와는 달리 그 값이 1일 때 범죄현장 행동변인들이 각각의 형태로 가장 완벽하게 분류됨을 의미한다(Amar, 2005). 주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은 Guttman이 개발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고전적인 통계가

은 공간상에 점으로 나타나고 두 점들이 멀게 위치하면 각 특징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장익진, 1998).

- 3) 첫째, 행동은 범죄현장에서부터 분명하게 관찰 가능하며 쉽게 오인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행동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유형과 피해자의 상처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와 같은 범죄현장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행동은 피해자를 향한 범죄자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묶는 것과 같이 제거 혹은 통제되는 관여의 강도를 참조한 좀 더 특화된 행동을 지표로 한다. 이러한 변인들은 한 사례에서 각각 행동의 부재 혹은 존재라는 양분된 형태로 기록되어 부호화될 수 있다(Salfati, 2003).

표 2. 국내 살인범죄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변인

(고선영, 2011 재인용)

구 분	행동변인
사체발견 장소 및 이동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인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의 사체 발견(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li> <li>- 사체발견 어렵도록 숨겨 놓음(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사체를 물에 버림(Santtila et al., 2001; 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li> <li>- 사체 전시(Salfati &amp; Haratsis,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살해현장에서 사체 이동(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ul>
사체상태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체에서 몸의 일부를 제거(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li> <li>- 피해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경우(Salfati &amp; Haratsis, 2001)</li> <li>- 피해자의 몸을 자름(토막)(Salfati &amp; Haratsis, 2001)</li> <li>- 무언가로 몸을 덮거나 가림(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얼굴만 덮거나 가림(Salfati &amp; Haratsis,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생식기를 드러낸 채 발견(Santtila et al., 2008)</li> </ul>
의복상태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히 옷을 입은 채 발견(Santtila et al., 2008)</li> <li>- 옷이 부분적으로 입혀진 채 발견(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알몸으로 발견(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힘(Salfati &amp; Dupont, 2006)</li> <li>- 의복 훼손(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ul>
성적요소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두, 음경 등의 상처/성적 행동(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성기삽입 성공 혹은 시도(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항문삽입 성공 혹은 시도(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구강성교 성공 혹은 시도(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8)</li> <li>- 피해자에게 이물질 삽입(Salfati, 2000;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사정여부(Santtila et al., 2008)</li> <li>- 검시를 통해 드러난 성적행동(Santtila et al., 2008)</li> <li>- 시간의 증거(Santtila et al., 2001)</li> </ul>
상해부위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얼굴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몸통상처(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팔 다리에 상처(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목의 상처(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ul>

(계속)

구 분	행동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구멍(인후)에 상처(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8)</li> <li>- 다량의 상처가 몸의 여러 군데에 분포(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몸의 한 부분에만 상처 있음(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한 장소에 다량의 상처 있음(Salfati &amp; Haratsis,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찌름 및 날카로운 물건에 관통(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무딘 도구(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손의 힘에 의한 상처(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ul>
공격도구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 막힘에 의한 질식(배개나 천 등으로 질식)(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목 조름에 의한 질식(교살)(Salfati &amp; Haratsis,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약물 혹은 독살(Salfati, 2000;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발로 차거나 때림(Santtila et al., 2008)</li> <li>- 오버킬(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팔다리 결박(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피해자 눈가림(Salfati, 2000;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ul>
통제흔적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에게 재갈 물림(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li>- 소음제거를 위해 사용된 물건(Santtila et al., 2008)</li> <li>- 피해자 고문흔적(Santtila et al., 2008)</li> <li>- 범행 전 초인종이나 전화기 망가뜨림(Santtila et al., 20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원확인 되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신원확인 되지 않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가치 있는 물건 훔침(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뒤진(물색) 흔적과 같은 절도나 강도 관련된 행동(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 범행도구 가져옴(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현장에서 사용하던 무기로 살해(Salfati, 2000;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li> </ul>
범행도구 및 기타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범행도구 발견(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li> <li>- 사체 혹은 범행현장 방화(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li>- 정액이나 지문, 족적 닦기 등 범인에 의해 파괴된 증거(Santtila et al., 2008) 및 법적 인식(Salfati, 2000; Salfati &amp;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amp; Dupont, 2006)<sup>4)</sup></li> <li>- 어두울 때 범행 (Salfati &amp; Haratsis, 2001; Salfati &amp; Dupont, 2006)</li> </ul>

갖는 정상분포, 양적 변수 등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자 개발되었다(Amar, 2005). 본 연구 자료와

같은 이분 변수의 다차원적도분석을 위한 WSSA1 (Weighted Smallest Space Analysis)은 변인들 사이의 상호관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법으로 분석절차는

SSA와 동일하다(김경옥, 2009).

### 요인분석

요인분석의 모형을 둘로 나눈다면 원상관행렬에서 주성분을 추출하는 주성분모형 또는 주성분분석과 축소상관행렬의 분해를 통해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공통요인모형 또는 공통요인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성분모형과 공통요인모형의 가장 큰 차이는 고유분산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 아닌가에 있다. 주성분모형에서는 측정변수의 분산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므로 공통분산과 고유요인의 구분이 관심사가 아니며 공통요인모형에서는 측정변수간의 상관을 초래하는 공통요인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고유요인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즉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고유분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측정오차라고 부르는 데서 볼 때 고유분산은 내용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Kruskal, 1978). 그러나 그것이 클수록 자료의 신뢰도를 해친다는 점에서 일단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료에서 측정의 정확도 지표로서 신뢰도(Cronbach의  $\alpha$ 계수)를 보고하는 것은 고유분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험 자료는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의미한다. 하나의 측정변수에서 공통요인이 차지하는 부분 즉, 공통분산을 공통요인모형의 전통에서는 공통분(공유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측정변수만을 다루는 심리측정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신뢰도의 값보다 좀 작을 수 있지만 요인을 측정한다는 점에서의 신뢰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분을 측정변수의 신뢰도라고 부른다. 요약컨대, 공통요인모형은 측정변수간 상관을 설명하는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모형이고 주성분모형은 측정변수들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선형결합으로서의 주성분을 추출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공통요인모형에서는 고유분산을 제거한 축소상관행렬을 분석하게 되고 주성분모형에서는 분산의 공통/고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원상관행

렬을 분석하게 된다. 사회과학에서 측정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최적의 선형결합을 구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주성분모형을 선택해야겠으나 변수 간 상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경우라면 우선 공통요인모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기초구조의 회전을 통해서 바람직한 최종구조를 탐색하지만 확인적 분석에서는 저자가 어떤 최종구조의 아이디어를 가설로 제시하고 경험 자료에 비추어 모형검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가 난다(이순목, 2010).

또한 요인분석은 관찰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소수의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통계방법이다. 측정변수간 상관이 클수록 변수를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기 쉬워지고, 그러면 측정변수와 요인간 관계가 설정되는데 그 관계는 선형적이다. 즉 요인분석은 수학적으로는 회귀분석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예측변수가 직접 측정 가능한 변수인 반면 요인분석에서의 예측변수는 직접 측정이 안 되는 변수이다. 요인분석의 분석자료는 다수의 상관계수가 들어있는 상관행렬이다. 본 연구의 자료와 같이 0(부재)과 1(존재)로 양분되는 변수의 경우 고전적 통계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HUDAP을 사용할 것이다. 일련의 숫자로 구성된 고전적인 통계와 달리 자료분석 통계패키지들이 여전히 빈약하기는 하지만 HUDAP은 자료분석의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 고전적인 통계를 보충하여 새로운 방향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자료분석 프로그램이다. HUDAP을 통한 요인분석의 결과 각 변인은 가치에 해당하는 퍼센트나 빈도로 나타나고 특질은 외생변인과 달리 반응적 유형의 상호작용(조화)으로 특화될 수 있다(Amar, 2005).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 및 절차상 공간의 적합도를 낮추는 고유분산을 제거한 축소상관행렬 분석, 즉 공통요인모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 지역성 가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상반된 내용을 근거로 한

4)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증거를 숨겨 범행 외 추가적인 행동 혹은 범행수법을 꾸밈(Davies, 1992) 경우 법적인 식행동이 있는 것으로 코딩

표 3. 살인범의 재범연구를 위한 유형 분류

1. **일반적인 언쟁에 의해 촉진된 살인:** 돈이나 재산 상실에 대한 확대된 지각; 돈이나 재산에 대한 논쟁; 작은 돈이나 소유에 대한 논쟁;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 몸싸움이 찌르거나 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경우
2.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일어나는 살인:**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접촉하게 되는 피해자를 죽이는 경우, 살인은 범인의 일차적 범죄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강도, 주거침입, 심각한 수준의 절도, 납치, 살인 등을 포함한 전과력을 지니고 있음
3. **가정폭력-친밀한 배우자폭력으로 유도된 살인:**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 현재 혹은 과거의 배우자나 함께 생활했던 친밀한 파트너 혹은 이성 친구가 해당, 대체적으로 중범죄나 도구적인 목적 성취 중의 긴장감 때문에 살해하는 것이 아닌, 성이나 사랑, 감정(정서)을 포함한 관계에서의 복잡성과 허약함 때문에 촉진되는 살해를 의미함
4.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우연한 살인:** 음주운전, 약물, 자동차 사고 등으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경우에 해당

살인 유형들이 제안되어져 왔다. 즉 중범죄 대 중범죄 아닌(Felony vs Non Felony) 살인, 혹은 도구적 대 표출적 살인(Block, 1986; Smith & Parker, 1980; Williams & Flewelling, 1988) 등 하나의 유형과 그와는 다른 또 하나의 유형만을 비교해 온 것이다. 특히 살인사건의 범죄현장 행동변인을 연구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범죄 행동의 동기, 도구적 및 표출적 공격성을 구분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치고 있다(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 그러나 범죄자의 표출적 혹은 도구적 동기에 의한 살인 구분은 수사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기존의 동기 중심의 유형분류에서 범죄의 동기는 범죄자가 검거된 이후에야 명확해지기 때문에 검거 이전의 수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유형분류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Häkkinen et al., 2004; Hill, Langevin, Paitich, Handy, Russon, & Wilkinson, 1982; O'Sullivan & Kelleher, 1987; 김경옥, 2009). 유사한 본질을 지닌 현존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듯 HUDAP의 WSSA1 역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WSSA1의 분리된 집단이 유지되면서 할당된 작업이 끝나면, 분리된 집단에 대한 내용설명을 연구자가 수행하는 것이다(Amar, 2005). 본 연구는 2차원으로 분석을 마치는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실무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좀 더 구조적인 이해에 근거

한 유형론(Sampson & Wilson, 1995)으로 분류된 Roberts, Zgoba, & Shahidullah(2007)의 재범 유형(표 3)을 참조하여 표현적\_현장방치, 표현적\_현장 은폐 및 도구적 살인 등 3가지 지역성 가설로 행동변인들을 분석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경찰청 및 전국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에 D/B된 971건의 살인범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살인죄명으로 검색된 사건과 살인미수 사건이 포함되었다. 사건자료는 피의자 진술조서, 부검 및 현장보고서가 포함되었지만 보고서로 요약된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내용분석을 통해 변인으로 분류되었다. 범죄분석요원이 면담을 하였으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미흡한 자료를 제외한 543건이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남자는 485명(89.3%), 여자는 48명(8.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38세(SD=14.33)였다.

5) 교통사고 등에 의한 우연한 살인 유형은 분석에서 제외시킴.

**분석방법**

선행연구(Salfati, 2000; 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lfati & Dupont, 2006; Santtila et al., 2008)를 통해 추출된 57개 변인 중 1% 미만의

빈도로 사례의 대표성을 보이지 못하거나 50% 이상의 빈도로 독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변인, 연쇄살인 특성에만 드러나는 변인은 고유분산으로, 이를 제외한 총 33개 행동변인으로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본 자료는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행동변인이 각각의

표 4. 살인범죄현장 행동변인 빈도

	변인이름(영문 코딩*)	코딩	빈도(%)	총(%)
1	사체 숨김(hid)	그렇다(1)	91(16.8)	543(100)
		아니다(0)	452(83.2)	
2	사체 이동(trans)	그렇다(1)	113(20.8)	543(100)
		아니다(0)	430(79.2)	
3	사체를 뒤편으로 덮음(cover)	그렇다(1)	67(12.3)	543(100)
		아니다(0)	476(87.7)	
4	부분적 복장으로 사체 발견(part_cl)	그렇다(1)	56(10.3)	543(100)
		아니다(0)	487(89.7)	
5	알몸으로 사체 발견(naked)	그렇다(1)	40( 7.4)	543(100)
		아니다(0)	503(92.6)	
6	의복 훼손 발견(cl_harm)	그렇다(1)	14( 2.6)	543(100)
		아니다(0)	529(97.4)	
7	성적 시도(sexual)	그렇다(1)	45( 8.3)	543(100)
		아니다(0)	498(91.7)	
8	성기 삽입(vaginal)	그렇다(1)	38( 7.0)	543(100)
		아니다(0)	505(93.0)	
9	항문 삽입(anal)	그렇다(1)	6( 1.1)	543(100)
		아니다(0)	537(98.9)	
10	사정(ejacu)	그렇다(1)	30( 5.5)	543(100)
		아니다(0)	513(94.5)	
11	머리에 상처(head_w)	그렇다(1)	142(26.2)	543(100)
		아니다(0)	401(73.8)	
12	얼굴에 상처(face_w)	그렇다(1)	186(34.3)	543(100)
		아니다(0)	357(65.7)	
13	팔다리에 상처(limb_w)	그렇다(1)	124(22.8)	543(100)
		아니다(0)	419(77.2)	
14	목에 상처(neck)	그렇다(1)	187(34.4)	543(100)
		아니다(0)	355(65.4)	
15	상처가 온 몸에 걸쳐 다량(multi)	그렇다(1)	174(32.0)	543(100)
		아니다(0)	368(67.8)	
		결 측 (9)	1( 0.2)	
		결 측 (9)	1( 0.2)	

(계속)

	변인이름(영문 코딩)	코딩	빈도(%)	총(%)
16	한 곳에 단 상처 있음(onepart)	그렇다(1)	186(34.4)	543(100)
		아니다(0)	356(65.6)	
		결 측 (9)	1( 0.2)	
17	한 곳에 다량의 상처(one_multi)	그렇다(1)	132(24.3)	543(100)
		아니다(0)	411(75.7)	
18	찌름(stab)	그렇다(1)	276(50.8)	543(100)
		아니다(0)	267(49.2)	
19	무딘 도구로 살해(blunt)	그렇다(1)	90(16.6)	543(100)
		아니다(0)	453(83.4)	
20	손의 힘으로 살해(manual)	그렇다(1)	111(20.4)	543(100)
		아니다(0)	432(79.6)	
21	질식사(suffo)	그렇다(1)	49( 9.0)	543(100)
		아니다(0)	494(91.0)	
22	교살(strangle)	그렇다(1)	131(24.1)	543(100)
		아니다(0)	412(75.9)	
23	발로 차서 살해(kick)	그렇다(1)	75(13.8)	543(100)
		아니다(0)	468(86.2)	
24	과도한 살해(overkill)	그렇다(1)	94(17.3)	543(100)
		아니다(0)	449(82.7)	
25	피해자의 신원 확인되는 물건 훔침(ident)	그렇다(1)	49( 9.0)	543(100)
		아니다(0)	494(91.0)	
26	피해자의 신원 확인되지 않는 물건 훔침(not_ident)	그렇다(1)	53( 9.8)	543(100)
		아니다(0)	490(90.2)	
27	가치있는 물건 훔침(value)	그렇다(1)	103(19.0)	543(100)
		아니다(0)	440(81.0)	
28	뒤진 흔적(ransack)	그렇다(1)	86(15.8)	543(100)
		아니다(0)	457(84.2)	
29	무기를 가져옴(w_brought)	그렇다(1)	224(41.3)	543(100)
		아니다(0)	319(58.7)	
30	범행현장의 무기로 살해(w_scene)	그렇다(1)	212(39.0)	543(100)
		아니다(0)	331(61.0)	
31	범죄현장에 방화(arson)	그렇다(1)	36( 6.6)	543(100)
		아니다(0)	507(93.4)	
32	법적인식(forensic)	그렇다(1)	103(19.0)	543(100)
		아니다(0)	440(81.0)	
33	어두울 때 범행(dark)	그렇다(1)	292(53.8)	543(100)
		아니다(0)	250(46.0)	
		결 측 (9)	1( 0.2)	

\* HUDAP 7.0의 한글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명으로 코딩.

사례에서 행동의 존재 혹은 부재라는 양분된 형태의 이분변수로 부호화 되었다.

본 연구는 HUDAP 7.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HUDAP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 간의 신뢰도 분석은 STATA를 사용하였다. STATA에서 알파(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변수들간의 신뢰성 혹은 일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며, 경험법칙으로 볼 때 알파계수가 0.8 이상이면 매우 강한 일관성을 의미하고 0.6 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 연구 결과

표현적\_현장방치, 표현적\_현장 은폐 및 도구적 살인이라는 지역 가설은 현장 상황에 대한 현상적인 특징만으로 기술된 것으로 지역 가설로 분류된 최종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설 설정 당시의 현상학적 특징 외 범죄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최종 주제를 현장의 특징은 물론 범죄 내용이 함축되는 주제로 재명명하였다. 일반적인 언쟁에 의해 촉진된 비계획적인 살인, 친밀한 관계 및 전문범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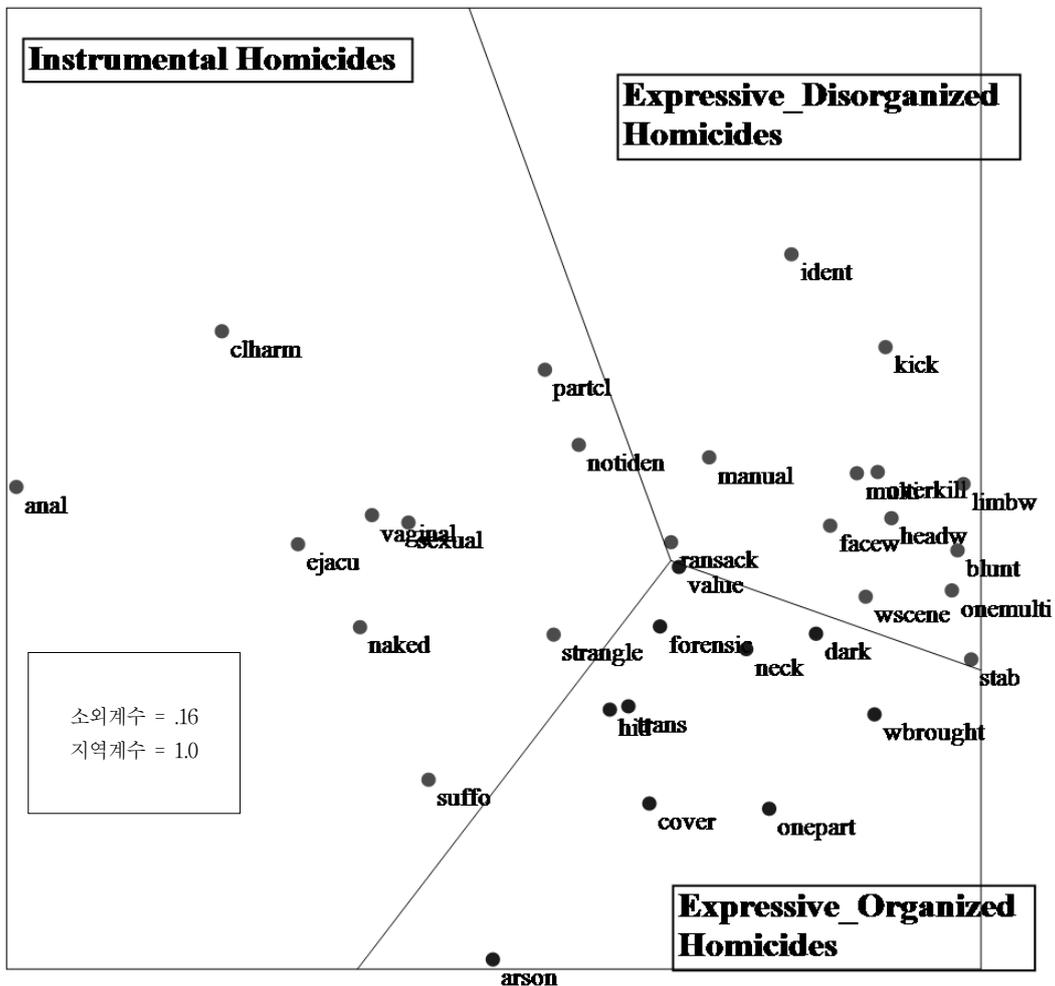


그림 2. 3차원상 1 by 2 최소공간분석: 범죄현장행동의 지역주제별 단면해석

들의 폭력으로 유도된 계획적 살인 그리고 성 목적의 도구적 살인으로 재명명된 3개 지역으로 각각의 변인을 구분하였을 때 완벽한 모형으로 분석을 마쳤다(그룹 2). 또한 현장행동의 존재 혹은 부재의 이분변수에 의해 자료분석이 이뤄졌기때문에 각각의 변인은 연속선상의 좌표 값을 갖는 대신 퍼센트나 빈도(Amar, 2005)로 나타나며(부록), 각 영역의 알파 값은 0.97, 0.89, 0.98로 해당 영역에 포함된 변인들은 신뢰롭게 설명되었다.

첫째는 순수하게 충동적이고 표출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변인으로 구성된 표출\_비체계적인 살인이다. 이들의 행동은 범죄자가 어떤 도구로 범행하였는지 혹은 어떤 부위에 상해를 가해 살해하였는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국내 살인 사례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살인 동기 및 계획 여부에 따른 살해방법, 공격부위와 안면부위의 공격 및 공격횟수나 오버킬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윤희, 2009)가 살인 범죄현장 행동변인의 다차원 분석결과로도 입증된 셈이다. 이 영역의 살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순간적 혹은 상황적 분노나 불만이 충동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살인으로, 시비가 촉발되어 살인의 결과로 나타난 집단을 설명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피해자를 만나는 순간에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범죄 통제적인 관점에서 억제책이 도구적 동기를 지닌 범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Chambliss, 1967; Parker & Smith, 1979; Williams & Thomas, 1977) 반면 법적인 처벌로도 억제할 수 없는 살인(이수정, 2010)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영역이 바로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의 살인 대부분은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 아닌 폭발적인 감정의 압박에 의해 저질러지는 열정의 범죄(Chambliss, 1969)이고 주된 자극은 폭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Block & Christakos, 1995; Decker, 1996; Polk, 1994). 이들은 살해 뒤에 냉정하게 범죄현장을 정돈하거나 상황을 수습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범죄를 종결시킨다. 결과에 대한 판단력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고 매우 충동적이며 무책임한 자들이 이 영

역의 범죄자들에 해당될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영역과는 달리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를 반드시 죽일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어느 정도의 부딪힘을 예상했거나 과거 폭력적 대결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에 의한 살인 범죄에 해당하는 표출\_체계적인 살인이다. 이 영역에서 보이는 범죄행동은 순수하게 상황적인 분노나 충동성에 의한 표출적 동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준비성과 관련된 현장에 무기 가져오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또한 범행 후에는 사체를 옮기거나 방화하는 등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은폐하거나 검거를 피하기 위한 법적인식이 있는 자들의 행동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살인은 Black(1983)의 설명대로 간통이나 성, 사랑 혹은 충성심과 관련된 문제, 가정문제(경제적, 음주, 집안 살림 등) 혹은 명예에 모욕을 주거나 채무, 자산, 자녀양육 등의 시비를 따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반응, 이러한 불만의 표출인 것이다.

하지만 이 영역에는 전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의 수용경험으로 인해 범죄자의 전력이 남아있는 자들은 주거침입 후 절도가 1차(잠재적) 목표였더라도, 만약 피해자와 조우할 경우 살해까지 예상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가는 자들의 범행이 포함된다. 달리말해 이런 전문적인 범죄자들이 강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재산을 훔치는 것만이 아닌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동까지를 예상하고 범행하는 자들이다. 즉, 재산이나 성을 대가없이 획득하는 삶이 자신의 직업 혹은 습관이 되어버려 강도나 강간의 행위가 특별한 범죄행동이 아닌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가 뛰어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심리적 과정에서 시작하여 전문화를 통해 검거 위험성을 떨어뜨리고, 보다 치밀한 계획과 목표물의 선택, 장물 거래처를 개발하고 경찰과 법원에 대처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감으로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다 증가시킨다는 범죄경력 전문화 과정(Clarke & Cornish, 1985)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전문화는 특수한 과제를 풀거나 수행하는 능력으로, 어떤 행동의 초기에는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익혀야하는 서술적 지식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의식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절차적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심리학회, 1997). 즉, 전문적인 범죄자에게 있어 타인의 재산이나 성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행동은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의식적 사고에 의한 도구적인 행동이 아닌 자신의 성격과도 같은 표출적인 행동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 범죄자의 피해자 살해는 범행의 성공과 관련하여 굳이 죽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표출적인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영역의 살인 범죄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가 면식일 경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전문 범죄자인 경우는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하게 된다.

마지막은 성범죄가 1차 목적인 범죄자가 의도치 않게 살인한 경우가 해당되는 도구적 살인이다. 이들은 성범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했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목을 조르거나 베개로 얼굴을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질식사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의 1차 목적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 하는 것이었으며 살인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우이다. Salfati(2000)에 의하면 이들이 질이나 항문 등에 강간을 하고 정액 등의 다른 성적 증거를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옷을 손상시키거나 의복을 부분적으로 혹은 알몸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범죄자의 개인적인 목적(성)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피해자의 반항이 심했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때문에 발생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죽은 지 몰랐을 수도 있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큰 죄책감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살인 직후에는 어느 정도 공백기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성범죄를 시도할 것이다.

## 논의 및 제언

살인의 각기 다른 유형은 각각 다른 패턴 및 상관과 원인을 지녔으며 동질적인 집단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또한 전체 살인을 근거로 한 분석적 결과가 살인범죄 유형화를 일반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다른 장소나 시대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살인의 하위 유형간의 상대적 혼합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인범에 대한 동질적인 집단으로의 분해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는다면 살인범의 한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결정인자를 쉽게 놓쳐버릴 수 있다. 이러한 명백한 인식 없는 유형화 연구는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시키므로 우선적으로 전체 살인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게 된다(Smith & Zahn, 1999).

본 연구의 수행결과, Smith와 Zahn(1999)이 강조했던 살인범의 유형 결정에 문화 혹은 시대별 차이에 따른 중요한 결정인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기존의 도구적 혹은 표출적 살인의 이분법적 구분은 살인 범죄자의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지만 국내 살인범죄 현장행동의 주제별 3개 영역은 살인 범죄자의 특성은 물론 살인 범죄가 이루어진 과정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현장행동은 바로 범적인식 행동이다.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 행동변수는 도구적 공격유형에 해당되어 나타났지만(Salfati & Haratsis, 2001; Santtila et al., 2001; Santtila et al., 2008) 국내의 사례에서는 반복적으로 표출적 행동유형에 포함될 때 모형의 적합도를 높였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이 범죄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와 또 다른 하나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이다(Beauregard & Bouchard, 2010). 즉 범죄과정에서 하나는 범죄에서 빠져나갈 때 필요한 전략이고, 두 번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Cornish & Clarke, 2002). 이런 전략으로 사용되는 범적인식은 궁극적으로는 수사에서부터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증거를 숨겨 범행 외 추가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행수법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Davies, 1992). CSI나 Law and Order와 같은 TV 쇼의 영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일부 범죄자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현장에 남겨왔던 증거를 청소하거나 파괴하는 법적 기술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됐다(Stevens, 2008). 즉, 과학수사를 통하여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물적 증거는 범죄가 실행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범죄의 핵심요소를 설정하고 피해자나 범죄 현장과 접촉된 용의자·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백한 용의자의 혐의를 벗겨준다(Fisher, 2004)는 것을 많은 범죄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자들이 법적 증거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능력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그들 대부분의 노력에는 일관성이 없다(Beauregard & Bouchard, 2010). 하지만 그것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간에 법적인식이 있는 범죄자들은 수사 및 검거 가능성을 줄이고자 범행 후 자신들의 신원을 은폐하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소위 CSI효과(Beauregard & Bouchard, 2010)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법적인식행동변인이 계획적인 범죄자들에 의한 도구적 살인에 포함되던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시대의 반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범행과 범죄자의 신원 은폐 등의 범죄적 지식(법적인식 행동)은 전문적인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극단적인 갈등상황에서 살인(예: 부정한 배우자의 살해)을 문제해결방법으로 생각하게 할 잠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다. 즉, 법적인식이 살인범죄에 대한 탈억제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Beauregard & Bouchard, 2010)는 것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수사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즉, 3가지 주제별 영역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범죄자의 전과력 등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출\_비체계적 살인의 경우, 상당수의 범죄자는 폭력전과를 지닌 사람들일 것이고 그와 관련된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을 수 있다. 또한 표출\_체계적 살인의 경우, 최초로 이해관계를 지닌 주변인과 유사한 범죄 패턴을 지닌 전문 범죄자의 균을 비등하게 둔 뒤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중 살인을 했다는 것은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성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다(Kenneth, Rober, & Joseph, 1997). 이는 최초로 성범죄를 시도하던 중 도구적 살인 영역에 해당되는 범죄행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도구적(성) 살인사건 발생시 성전과자들을 대상(면식 여부 관계없이)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면 시간과 경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청의 범죄분석요원들의 면담 혹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 사례들로만 연구가 실시되었고, 그 중에도 불충분한 사례 설명이나 내용 부족으로 제외된 사례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국내 살인범죄를 완전히 살펴보는 못했다. 또한 알코올은 마약에 비해 살인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논의되고 있으며(Smith & Zahn, 1999), Fagan(1990)의 연구결과는 알코올이 대인간 폭력행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해준다. 이렇듯 알코올이 반영된 살인범죄 현장과 일반적인 살인범죄 현장특성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알코올을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변수로 두지는 않았고, 알코올에 허용적인 우리문화에서는 알코올 변수가 전체 행동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알코올과 살인범죄 현장행동과의 관련성은 살펴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코올과 관련된 우리 문화 특성상 차후 연구에서는 행동변수와 알코올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변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 목적이며, 전체 살인 범죄를 유형화로 일반화하지는 않기 때문에(Smith & Zahn, 1999) 차후 연구에는 성적 살인, 강도 살인 등 각 하위 주제별 살인범죄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뉜 범죄자 각각의 심리적,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한 총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는 살인 범죄자의 어떤 특성들이 범죄 현장에서 독특한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지 각 영역

별 범주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듯 범주현장의 행동과 이를 통한 범주자의 특성 이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살인 범죄의 수사는 물론 예방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행동적 대안도 제시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영, 박형민 (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선영 (2011). 살인범주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현장행동특성 고찰. 한국심리학회: 법정, Vol.2, No. 2, 135-158.
- 김경옥 (2009). 방화범주자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범주현장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윤희 (2009). 살인사건의 시체에 나타난 손상패턴에 관한 연구-살인범의 특성에 따른 공격도구·부위·횡수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한국 스테이타학회. 한국STATA학회 출판부.
- 박광배 (2001).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수정 (2010). 최신범죄심리학(제2판). 북카페.
- 이순목 (201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장익진 (1998). 다차원 척도 분석법. 서울: 연암사.
- 한국심리학회 (1997).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 경찰백서 (2009).
- Alison, Laurence. J., & Stein, Kristin. L. (2001). Vicious circles: accounts of stranger sexual assault reflect abusive variants of conventional interactions.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Vol. 12, No. 3, 515-538.*
- Almond, L., Duggan, L., Shine, J., & Canter, D. (2005). Test of the arson system model in an incarcerated population. *Psychology, Crime & Law, 11, 1, 1-15.*
- Amar, R. (2005). *Hudap manual*. Israel.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Computation Authority.
- Baumgartner, K., Ferrari, S., & Palemo, G. (2008). Constructing Bayesian Networks for criminal profiling from limited data. *Knowledge-Based System, 21, 563-572.*
- Block, C. R. (1986). *Homicide in Chicago*. Chicago: Loyola University, Center for Urban Policy.
- Block, C. R., & Christakos, A. (1995). Inmate partner homicide in Chicago over 29 years. *Crime and Delinquency, 41(4), 496-526.*
- Brog, I., & Lingo, J. C. (1987). *Facet theory: Form and content*. New York: Springer-Verlag.
- Canter, D. (2004). Offender profiling and investigative psych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 1-15.*
- Canter, D., & Fritzon, K. (1998). Differentiating arsonists: A model of firesetting actions and characteristic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3, 73-96.*
- Canter, D., & Heritage, R. (1990).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u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Vol. 1.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 185-212.*
- Chambliss, W. (1967). The Negative Self: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heoretical Assumption. *Sociological Inquiry, 34, 108-112.*
- Clarke, Ronald, & Dreck B. Cornish. (1985). Modeling Offenders' Decisions: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Michael Tonry and Norval Morris(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6, 170-171.*
- Cornish, D. B., & Clarke, R. V. (2002). *Analyzing organized crimes*. In a. R. Piquero & S. G. Tibbetts(Eds.), *Rational choice and criminal behaviour: recen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41-63)*. New York: Routledge.
- Davies, A. (1992). Rapists' behaviour: A three aspect model as a basis for analysis and the identification of serial crim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55, 173-194.*

- Decker, S. H. (1996). Deviant homicide: A new look at the role of motives and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Journal Res Crime Delinquency*, 33, pp. 427-449.
-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4, 401-421.
- Einhorn, H., & Hogarth, R. (1978). *Behavioral decision theory: Processes of judgement and choice*. In M. Rosenzweig & L. Po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Eric Beaugard, & Martin Bouchard. (2010). Cleaning up your act: Forensic awareness as a detection avoidance strateg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1160-1166.
- Ericsson, K. Anders, & Simon, Herbert A. (1980). Verbal reports as data. *Psychological Review*, 87(3), 215-251.
- Fagan, J. (1990). *Intoxication and aggression*. In M. Tonry, & J. Q. Wilson(eds.),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 241-320.
- Fisher, B. A. J., & Baca, L. D. (2004). *Techniques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seventh edition. CRC Press LLC.
- Fisher, Bary A. J. (2004). *Techniques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Boca Raton, London, New York, Washington, D.C.: CRC Press.
- Fiske, S. T. (1980). Attention and weight in person perception: The impact of negative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89-906.
- Fiske, S. T., & Neuberg, S. L. (1990). *A continuum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f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3, p. 1-73). New York: Academic Press.
- Fritzon, K., Canter, D., & Wilton, Z. (2001). The application of an action system model to destructive behaviour: the examples of arson and terrorism.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9, 657-690.
- Häkkinen, H., Puolakka, P., & Santtila, P. (2004). Crime scene action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in ars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97-214.
- Hill, R. W., Langevin, R., Paitich, D., Handy, L., Russon, A., & Wilkinson, L. (1982). Is arson an aggressive act or a property offence? a controlled study of psychiatric referral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7, 648-654.
- Howitt, D. (2002). *Forensic and criminal psychology*. Pearson Education.
- K. Polk. (1994). *When men kill: scenarios of masculine vio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eth A. H., Rober D. K., & Joseph G. W. (1997). *Case management for missing children homicide investigation*. Christine O. Gregorie attorney General of Washington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Kocsis, R. N., Cooksey, R. W., & Irwin, H. J. (2002).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xual murder: An Empirical Mod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5), 532-554.
- Kruskal, J. B. (1978). Factor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s: Bilinear Method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tatistics*. Edited by W. H. Kruskal & J. M. Tanur. Free Press.
- Lingoes, J. C. (1973). *The Guttman-Lingoes Non-Metric Program Series*. Ann Arbor, MI: Mathesis Press.
- Myers, D. (1990). *Social Psychology*(3rd ed.), New

- York: McGraw-Hill, Inc.
- O'Sullivan, G. H., & Kelleher, M. J. (1987). A study of firesetters in the South-West of Ireland.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1*, 818-823.
- Paese, P. A., & J. A. Sniezek. (1991). Influences on the appropriateness of confidence in judgment: Practice, effort, i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8*, 100-130.
- Parker, R. N., & Smith, M. D. (1979). Deterrence, poverty, and type of homicid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614-624.
- Pinizzotto, A. J., & Finkel, N. J. (1990).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14*, 215-232.
- Roberts, A. R., Zgoba, K. M., & Shahidullah, S. M. (2007). Recidivism among four types of homicide offenders: An exploratory analysis of 336 homicide offenders in New Jerse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493-507.
- Ronald Becker. (2000). *Criminal Investigation*. Southwest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Texas, Aspen Publishers, Inc.
- Rossomo, D. K. (2000). *Geographic profiling*. Boca Raton, FL: CRC Press.
- Salfati, C. G. (2000).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and instrumentality in homicide: Implications for offender profiling. *Homicide Studies*, *Vol. 4*, No. 3, 265-293.
- Salfati, C. G. (2003). Offender interaction with victims in homicid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frequencies in crime scene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8*, No. 5, 490-512.
- Salfati, C. G., & Dupont, F. (2006). Canadian Homicide: An investigation of crime-scene actions. *Homicide Studies*, *Vol. 10*, No. 2, 118-139.
- Salfati, C. G., & Haratsis, E. (2001). Greek homicide: A behavioral examination of offender crime-scene actions. *Homicide Studies*, *Vol. 5*, No. 4, 335-362.
- Salfati, C. G., & Taylor, P. J. (2006). Differentiating sexual violence: A comparison of sexual homicide and rape. *Psychology, Crime, & Law*, *12*, 107-125.
- Sampson, R. J., & Wilson, W. J. (1995).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 D. Peterson(Eds.), *Crime and inequality*(37-5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ntilla, P., Häkkinen, H., Alison, L., & Whyte, C. (2003). Juvenile fire-setters: crime scene actions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8*, 1-20.
- Santtila, P., Canter, D., Elfgrén, T., & Häkkinen, H. (2001). The structure of crime-scene actions in Finnish homicides. *Homicide studies*, *Vol. 5*, No. 4, 363-387.
- Santtila, P., Pakkanen, T., Zappalà, A., Bosco, D., Valkama, M., & Mokros, A. (2008). Behavioral crime linking in serial homicide. *Psychology, Crime & Law*, *Vol. 14*, No. 3, 245-265.
- Smith, M. D., & Parker, R. N., (1980). Type of homicide and variation in regional rates. *Social Forces*, *59*, 136-147.
- Smith, M. D., & Zahn, M. A. (1999). *Homicide: A sourcebook of social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 Sniezek, J. A., Henry, R. (1990). Revision, Weighting, and commitment in consensus group jud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5*(1), 66-84.
- Stevens, D. J. (2008). Forensic science, wrongful convictions, and American prosecutor discretion. *The Howard Journal*, *47*, 31-51.
- Wachi, T., Watanabe, K., Yokota, K., Suzuki, M., Hoshino, M., Sato, A., & Fujita, G. (2007).

- Offender and crime characteristics of female serial arsonists in Japan.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4, 29-52.
- William J. Chambliss. (1969). *Crime and the Legal Process*. New York: McGraw-Hill, pp. 360-378.
- Williams, A., & Thomas A. W. (1977). A survey of judges' responses to simulated legal cases: Research note on sentencing disparity.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68, No. 2, 306.
- Williams, K. R., & Flewelling, R. L. (1988). The social production of criminal homicide: A comparative study of disaggregated rates in American c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421-431.
- Wolfgang, M. E. (195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54.

부 록

살인범죄현장행동의 영역별 수준간 빈도표

변인번호	소외계수	구획좌표		
		1	2	3
1	.13199	9.12	35.01	36.73
2	.13333	14.88	28.41	28.98
3	.14323	1.46	21.23	28.20
4	.21464	11.57	23.22	31.42
5	.14756	1.61	38.58	31.36
6	.16793	.00	31.63	13.20
7	.17191	6.14	47.01	38.58
8	.20776	30.00	22.78	33.95
9	.17259	15.04	16.11	48.81
10	.12911	11.54	25.88	38.56
11	.21114	20.44	.00	11.34
12	.15764	32.82	23.85	16.02
13	.17133	10.65	43.55	25.62
14	.12501	36.93	52.71	24.18
15	.17252	32.21	64.94	19.03
16	.18490	24.69	40.09	13.86
17	.25981	23.74	50.03	.00
18	.12715	31.16	27.16	11.30
19	.18136	10.13	35.01	5.71
20	.16807	48.33	64.92	54.37
21	.19341	35.09	40.56	26.98
22	.14402	15.21	38.66	17.89
23	.10920	39.21	52.45	28.37
24	.25124	44.68	25.31	48.56
25	.19795	66.26	39.88	13.37
26	.11551	75.22	32.14	56.27
27	.11488	61.34	26.19	21.57
28	.08601	64.54	24.73	25.36
29	.09385	100.00	27.26	26.41
30	.10443	71.79	25.27	22.91
31	.20439	53.38	58.98	3.15
32	.16246	44.74	41.41	12.89
33	.19528	41.29	19.51	1.58

## Crime Scene Behavior Analysis on Homicide in Korea

Sun Young Go   Soo Jung Le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Kyonggi University

Of all major crimes, homicide investigation requires the greatest effort on the part of the Police(Becker, 2000). This study aim that what's component of crime scene behavior of homicide in Korea, how can separate in thematic behavior from crime scene behavior of homicide, For decrease errors of uncertainty of investigators that turn crime scene out. Data for analysis use 971cases of murder and attempted murder, 2006-2010 and analysing execute by crime scene behavior variable of 33. As result, it's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ree region rather than distribution of two region(expressive vs instrumental)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First is the Expressive\_Disorganized Homicides, including most of cases and it's not different in murder weapon and injury position. Second, it's include motive of expressive, but offender may have been anticipating a confrontation with the victim and/or had previous experience relating to violent confrontation. This region shall be called Expressive\_Organized Homicides. Last is the Instrumental Homicides with Sexual crime. Distributing on three region of data, forensic awareness play the role of locomotive. This action have been regard as instrumental action. But wether or not influenced by TV shows such as CSI or Law and Order, contemporary people is now more aware of these forensic techniques(Stevens, 2008). This study prove forensic awareness behavior is able to affect the effect of disinhibitor(Beauregard & Bouchard, 2010). In other words, it can be increase that possibility, general people do homicide. Consequentially, generalization of this behavior can distribution between Korea' crime scene behavior of homicide and the others, in theoretical and investigative.

*Keywords: Offender classification, Crime scene behavior of Homicide, Murder of expressive vs instrumental, Forensic awareness, the effect of disinhibitor.*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7월 0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11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11월 27일